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4, 2018 Vol. 607

남가주 연세인들이 사랑을 모아 컵라면을 전달했다.

사랑의 컵라면을 이웃들과 함께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 후원금으로 마련

남가주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 이하 연목회)는 지난 12월 27일(수) 오전 11시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랑의 컵라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주최측은 미리 신청을 한 개인에게 라면 한 상자씩(6개 들이) 500개와 교회와 단체들에게 평균 20개씩 2,000 상자의 컵라면을 나눴다.

회장 김기동 목사는 "지난 12일 세리토스 생수의강선교교회서 종교개혁 500주년 및 추수감사절 기념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여 모은 후원금 총 2만 달러의 기금으로 5,000 상자를 구입했다"면서 "단체 및 후원자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뽑아 말씀과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1차 사랑의 컵라면 2,000 상자는 지난 20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앞에서 나눈 바 있다. 나머지 1,000 상자는 작은 교회 및 선교단체를 위해 분배될 예정이다.

김상용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본지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월 15일 오전 10시 로텍스호텔(341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이며 주제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이다. 목사, 사모, 선교사, 전도사, 평신도 등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교재 및 점심이 제공된다. 회비는 없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김상용 목사가 7명과 함께 개척해 현재 3만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 곳곳과 전세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문의) 213-739-0403

"GMS와 함께 전 세계로 향할 선교사" 미주 OMTC 훈련생 모집

건강한 선교 훈련을 통해 건강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미주 OMTC(Oversea Missionary Training Course) 제5기가 시작된다.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GP선교센터(10582 Katella Ave. Anaheim, CA92804)에서 훈련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1,400달러다. 교재와 숙식이 모두 포함돼 있다. 3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김찬곤 GMS 이사장, 박무용 미주 OMTC 이사장, 조기산 GMS 본부총무, 이병구 미주 OMTC 훈련원장과 함께 박기호 교수, 조나단 강 박사, 박시경 교수 등 학자들이 Kairos 선교 훈련 프로그램, 선교 전략, 선교 문화 인류학, 선교와 인문학, 선교 정책, 선교사의 삶, 건강한 선교, 선교 역사, 리더십, 영성 관리 등을 가르친다. 2월 8일에는 GMS 정식 선교사로 임명 및 파송을 받게 된다.

GMS(Global Mission Society)는 현재 98개국에 2,547명을 파송한 한국 최대의 선교 단체이며 이번 과정은 GMS 장단기 선교사를 발굴,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병구 훈련원장은 "건강한 파송단체와 함께 건강한 선교를 감당할 전문인, 차세대 선교사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714-614-3666

〈신년사〉 편집고문 박희민 목사

새해를 사는 지혜

박희민 목사

2018년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해는 북핵과 IS 테러, 재난, 많은 사고들로 불안했지만 새해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보다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별히 지혜롭게 살기를 기도한다.

지혜는 지식보다 귀한 것이다.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바로 사용케 하는 것도 지혜이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허문다고 말한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새해는 세월을 아끼며 살았으면 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세월(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둘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이다. 즉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돈보다 값진 것이다. 곧 생명이다. 우리가 한 해를 사는 것도 결국 주어진 365일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루의 선물, 2018년이란 선물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들, 하루 하루를 최상, 최선, 최고의 날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후회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 신앙과 인생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말한다.

새해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았으면 한다. 주어진 시간을 자기 생각, 욕심, 정욕대로 살면 부끄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지혜롭게,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과 기도와 상담을 통해 그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술 취하면 주의 뜻을 거스려 방탕하게 살게 된다. 내 힘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도 어렵다. 성령충만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충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충만한 삶에는 공통점이 있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약간 미친기가 생긴다. 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성령충만한 삶도 비슷하다.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지혜롭게 살게 한다. 술 취하면 담대하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성령충만한 성도는 하나님만 두렵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담대하고 용기있는 삶을 산다. 인심이 좋다. 사랑이 넘친다. 성령충만할 때도 사랑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성령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된다. 성령충만하게 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새해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Oxford Ave / Serrano Ave / Pico Blvd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지원자 모집
디아스포라 한인신학교 최초로 ABHE (성서대학교협의회)가 인가한
철학박사 (Ph.D.)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8년 Ph.D. 과정 봄학기 강의 일정표
1월 22일 - 26일
강의 #1 기독교 문화 인류학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교수 Charles H. Kraft,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Emeritus
Peter Kang, Ph.D. Director and Professor of Ph.D. in Contextual Studies
1월 29일 - 2월 2일
강의 #2 심화 프로세싱을 통한 리더십 형성 (Leadership Formation Through Deep Processing)
교수 Christina Kang, Ph.D., Director and Professor of Global Leadership Institute, Assistant Director of Ph.D. in Contextual Studies
입학 원서 마감 2018년 1월 15일 (월)
- 위 Ph.D. 관련 두 클래스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 장학금 지원 : 목회자 (매학기 등록금의 20%), 선교사 (매학기 등록금의 30%)
연락처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사무실: (562) 926-1023
심재환 박사, 박사원 Coordinator : (626) 372-3301 | E-mail : doctor@ptsa.edu
www.ptsa.edu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신년사〉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

새해에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부딪혀 나가자

송정명 총장

2018년도 새해가 밝아 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의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리적인 시간의 연속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2017년 12월이나 2018년도 1월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해가 떠오르는 시각도 비슷하고 해가 지는 시각도 거의 비슷하다. 기온의 차이도 별반 없다.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2017년 12월 31일과 2018년 1월 1일이 다르다. 새해라는 시간의 경계선 때문이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새해에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슴도 설레게 마련이다. 하얀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잔잔한 흥분도 일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맞부딪쳐야 할 현실적인 여건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마냥 들뜬 마음으로 지내기가 어렵고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휘장이 드리우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을게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런 마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하얀 백지를 앞에 두고 점 하나도 찍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일단은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딪힘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새해 연초부터 국민스포츠라고 곽광을 받고 있는 풋볼 경기가 여기 저기서 열린다. 풋볼 경기의 생명은 바로 상대방 선수들과 맞부딪히는 태클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 선수가 자기 진영으로 돌진해 오고 있는데도 몸을 도사리고 주눅이 들어 있다면 그 경기는 진 바나 다름이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전해 나가겠다는 추진력이 풋볼의 생명이고 미국의 국민 정신인 것 같다.

이런 정신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후 4:8-9)고 앞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겠다는 진취적인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앞에 당면한 장애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새해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어려움들과 맞부딪혀 보겠다는 믿음으로 새해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줄 알고 오늘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려 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신년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서 회장

하나님 나라의 비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자

이서 회장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 것은 다 조금 있다가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이란 결국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공부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만 있으면 안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손으로 도우사 올해는 조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선교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뇌관에 불을 붙이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조국과 미국에 강물같이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1-2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연합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올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지역을, 이 민족을,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서로 연합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OC교협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서 자신의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많은 교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잘 준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빕니다.

〈신년사〉해외한인장로회 박성규 총회장

영적으로 깨어 공의와 진리 구하는 2018년 되길

박성규 총회장

2018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역대상 4:10)"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야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손으로 도우사 올해는 조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선교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뇌관에 불을 붙이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조국과 미국에 강물같이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1-2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 30만명 중에 단 한명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한 명의 의인을 인하여 나머지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이 바로 그 땅의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버스 안에 모두가 술에 만취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가 깨어 있으면 버스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운전대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깨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조국과 미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공의와 진리를 구하며 실천하는 의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2018년 한 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유학생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수요일 오후 5:30	1차 : 1월 17일 위기가정상담과 치유 (김영철 교수) 현대문화와 리더쉽 개발 (황의성 교수) 2차 : 1월 24일 예배 인도를 위한 기타 교실 (조덕희 목사) LA 확장 클라스 (문의: 213-422-9966, la@gm.edu)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플러튼 본교 오픈 특강

미디어 사역을 위한 자막(CG)및 영상광고 제작 실무 과정 (3학점) 1월 15~18일(월~목), 22~24일(월~수), 30일(화) 8일간 저녁 5:30~11:00pm	강사 : 제임스구 교수 및 실무전문가 청강:150불 교재 및 간식: 50불
혜 택	실무 자막 프로그램 실습, 한글 및 영어 성경 자동 자막 및 복음송 및 찬송가 5000여 곡 자막 소스 제공

• 2018년 봄학기 등록시작 : 2018년 1월 8일(월)
• 봄학기 수업시작 : 2018년 2월 5일(월)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카카오톡: gmu3000

• 찾아오시는 길

〈신년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하나님과 생명 탯줄로 연결된 2018년 새해를 사소서!

희망찬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에 영국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의 시 〈오늘을 사랑하라〉를 소개합니다. 그는 과거로 흘러가버린 어제도 아닌, 아직 당도하지 않은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외칩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에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일 년이 되고
오늘이 30000번 모여 일생이 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시간과 감각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객관적 시간이라면 제2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감각적 시간은 시간의 물리적 흐름이 일정함에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몰입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30대에는 30킬로미터, 40대에는 40킬로미터, 50대에는 50킬로미터 속도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의 양이 줄어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명 총장

시간을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그 이름 때문에 하루만 사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의 수명은 평균 1년이나 되며 오래 사는 것은 3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사는 기간 동안 대부분을 물속에서 유충상태로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 물 밖으로 나온 후 짝짓기를 하고 하루 만에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살이 시간과 우리 시간 사이에 물리적 시간의 차이는 엄청 크겠지만, 어쩌면 감각적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억측일까요? 하루살이가 해 지기 전 냇가나 전등 아래 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은 구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 합니다. 아래위로 열심히 군무하는 수컷들 속으로 암컷들이 날아들면 쌍쌍이 짝을 지어 허니문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문 비행이 끝나면 하루살이는 물속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만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다 사라지는 하루살이의 삶이 그저 덧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생애에 비하면 하루살이의 생이 보다 생동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은가요?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고귀함을 어찌 하루살이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자를 향하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 6:6)고 일갈했던 잠언서의 기자는 인간이 한갓 미물에게도 배워야 할 지혜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귀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죄를 짓고서 뉘우침의 시간 없이 한 평생 감옥에서 산 죄인보다는 절절한 사랑하며 반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의 생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비결입니다. 형형색색의 오늘이 모여 우리의 생애를 만들겠지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김기석 목사의 글로 대신합니다. "이 생기 충만한 날,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들사람을 만나고 싶다. 스스로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어 새로운 생의 문법을 만들어 가는 사람. 전사가 되어 낡은 가치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기꺼이 끌어안는 성스러운 반역자들. 새로운 세상은 그들을 통해 도래한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이는 그 길을 일러 십자가의 길이라 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시간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 의식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한 채 하루가 아쉬운 빛을 띠고서 유성처럼 과거로 날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을 살아도 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현시(現時)로 경험하며 그 은혜로 고달픈 현재를 밀고서 희망의 미래로 나가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present)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present)입니다.

고용된 시점에 관계없이 일과 후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한 주인처럼(마 20:1-16),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의 제한도 용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노력의 양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듯 흘러넘칩니다. 집 나간 탕자를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간은 인내와 사랑으로 충만한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흐르는 그 시간을 공유하려면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태와 연결된 생명줄을 통해 어머니와 모태의 아기가 하나가 되듯, 깨우침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로 지속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시간의 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언제나 오늘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길을 뚜벅뚜벅 정직히 걸어야 할 터입니다.

2018년 새해는 하나님과 생명 탯줄로 연결되어 그분과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샘 신 회장

긍정의 말과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2017 한 해가 벌써 지나고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샘 신 회장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법칙을 창조하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누가 감히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먼 옛날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도 중력의 법칙은 존재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면 그는 중력의 법칙을 거역한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018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새해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2018년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반드시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남가주한인목사회는 마태복음 5장 13-15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내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가 모든 일에 거룩한 행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앞장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여러분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참된 목사회로 만드는 일에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관심과 기도가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7〉

시리아 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1)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선교사역을 임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해도 선교지의 분위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우리 일행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많이 긴장하며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가면서 선교지에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적지만 교회도 생기고 그리스도인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들 그리고 미주나 한국에서 연합중보기도 모임과 교회개척을 목적으로 한 교회들의 단기선교팀들이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 갔다. 우리가 더 절실히 무슬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터키를 교두보로 삼아 이슬람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길을 열어 주십사 기도했다. 그렇게 몇 년 이슬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막다른 길 같은 어려움도 돌파하고, 눈물과 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마치 어둡고 협소한 터널의 끝을 보는 듯한 사건이 터졌다. 시리아 내전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의 민족 수백만 명이 그 땅을 나와 자유와 안전을 찾아 흩어졌다. 가장 많은 2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터키로 몰려 들었다.

2007년도 찾았던 터키의 도시들이 달라졌다. 디야르바크르, 가지엔텝, 바트만 등 남부의 도시들은 현재 큰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룬다. 난민들의 거주지가 건설 중이다. 외교적으로 EU에게 막대한 원조를 받고 터키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거처들을 지어 주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믿는다. 곳곳마다 난민들의 교회들이 들어 서고 일부 난민들은 교회들을 찾아 가기 시작했다. 터키뿐 아니라 난민들을 받은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다 그렇다.

〈계속〉

터키 남부 바트만 도시 난민 아파트 건설 현장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조직 (I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새로 창립된 노회는 먼저 만국장로교공의회에 한국 장로교 노회 창립을 알리기로 했다. 노회는 이 일을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위임했다.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고, 노회 설립을 허락해 준 미국 남·북 장로교회와, 캐나다, 호주 장로교회에도 감사 편지를 보낼 것도 가결했다. 초대 선교사로, 그때 미국에 가 있던 언더우드에게 노회 창립을 알리는 일도 결의하여, 선배 선교사에 대한 예절도 잊지 않았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따라, 새로 설립된 노회는 전도부를 설립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첫 사업으로 7인 목사 중, 이기풍(李箕豐) 목사를 제주도에 파송하였다. 이어 1909년 시작된 백만 명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제(金永濟)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金振瑾) 목사를 서간도에 전도목사로 파송하였다.

1909년 제2회 졸업생 아홉 명이 졸업했을 때도 졸업생 중 최관흘(崔寬屹) 목사를 러시아 령, 블라디보스톡(海蔘威)에 파송하여 선교한 결과, 후에 50여 교회가 설립되어 노회가 창립되었다. 같은 해, 1회 졸업생 한석진 목사를 동경에 파송해, 유학생 상대로 전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는 현지 감리교회, 기타 선교부와 협력하여 초교파적 선교를 실시하여 마침내 교회를 설립하였다.

평양 여전도회는 1909년에 이선광(李善光)을 제주도에 파송하여 이기풍 목사를 도와 5년간 전도하게 하였다. 평양 여전도회는 1898년 2월 창립되었다.

창립총회 회록에, "남의게 주는 것이 밧는 것보다 복이 잇다 하엿고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게 의탁하야 죄악에 침륜한 자의게 복음을 전하라 하섯스니 이 귀한 책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라." 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짐했다.

1908년에 조직을 완전히 갖춘 여전도회는 회원 1인이 1전씩 연보하여 그것으로 전도인을 파송하였다. 또한 미주 지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방화중(方華中) 목사를 파송하였다. 이런 전도 사업에 대해 「장로교회사전휘집」에 "나이 어린 조선 교회로서는 이적(異蹟)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노회는 전국을 함경, 평북, 평남, 황해, 경충, 전라, 경상 등 7대리회(代理會)로 구분하여 노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하였다. 노회가 구성되자 선교사들의 소속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노회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국 예수교 장로회와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 노회와 총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의 징계와 임면(任免)은 종전대로 그들을 파송한 모교회와 동 선교부에 속한다. 만약 선교회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서 한국 노회나 총회의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교회의 최고 치리기관인 총회에서 교회에 가장 좋을 대로 판정한다."

이는 선교사들이 한국 노회에서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그 징계나 임면은 본국 교회에 유보함으로, 그들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해 자기들의 치외법권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한국 목사들과 구별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산동성에 파송된 후, 바로 중국 교회로 적을 옮기고 중국 교회의 치리를 따랐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독립하고 노회까지 구성하였으므로 당연히 한국 교회에 적을 옮기고 그 치리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국 교회에 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이 점을 매섭게 질타하고 있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에는 독립하여 하(何)전도국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선교사 제군도 역시 자(自)증명하는 바인데 하고(何故)인지 선교사 제군이 자기 노회와 전도국에 이명하지 않고 엄연히 조선 노회와 총회의 회원이 되며 또 회원이 될 시에는 그 회에 속함이 분명한 것인데 하고인지 조선노회와 총회가 치리할 권(權)이 무(無)하다 함으로 차(此)로 유(由)하여 모순이 심하지 아니한가. 차(此)는 무타(無他)가 선교사 제군이 조선 교회를 동인시(同人視)하며 형제시하지 않고 야만시하며 노예시함이다. 선교사 제군이여 성신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결국(結局)하려느냐. 속히 회개할지어다. 차(此)외 개인의 부족은 거론하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한 일에 대한 감사와 칭송은 마땅히 저들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한국 교인과 동일시하지 않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유지하며 조선 교회의 치리 아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위에 기록한 것 같이 한국인을 '야만시하거나 노예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선 교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점은 단순히 선교사들의 잘못만을 규탄할 일은 아니며, 당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강경한 요청이 없었던 데도 그 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넘어 가야 한다.

1907년 독노회가 창립된 이래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1910년 한일병탄과 1911년 105인사건 등 교회 안팎의 민족사적 수난이 휘몰아쳤지만 교회는 의연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동안 전국 교회를 한 노회 안에 관리하던 것을 1911년, 전국 7대리회를 7노회로 조직하고, 총회 창립을 준비하였다.

역사적 창립총회는 1912년 9월 1일 주일, 독(립)노회장 전주의 레널즈(W. D. Reynolds, 李訥瑞) 선교사의 성찬식 집례와 설교로 개막되었다. 준비기도회는 오후에 5천 명 이상 교인이 운집한 가운데 평북 선천의 김석창(金錫昌)의 목사 설교로 진행되었다.

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1912년은 한국에 첫 선교사 알렌 의사가 도착한 1884년으로부터 꼭 28년이 되는 해로 불과 한 세대(30년)이 되기도 전에 총회가 조직된 세계 선교 사상 초유의 뜻깊은 해가 되었다. 총회 조직은 교회의 완전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선교사 시대를 마감하고,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엄한 첫 출발을 의미한다.

〈계속〉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하우스
1월 25일(목) 7pm

New Covenant Academy

무료 앱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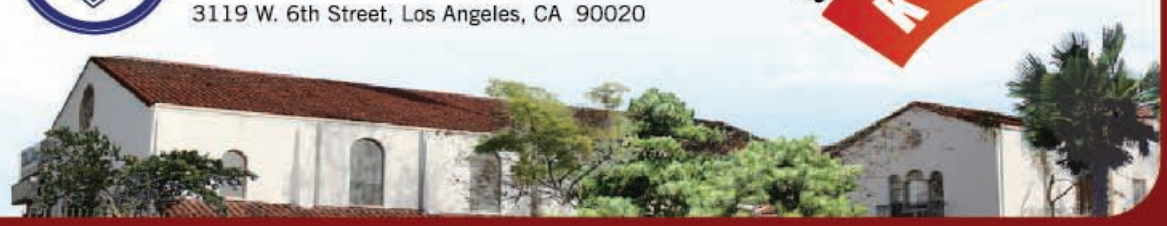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달란트 결산의 교훈

마태복음 25:14-3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의 성과에 대한 결산을 보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십니다.

주시고 가신 것이 금(gold)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은(silver)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왜 차별되게 한 사람은 다섯 개, 한 사람은 두 개, 한 사람은 한 개를 주고 가셨을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하나도 주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은혜 받은 그 시간부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주와 능력을 따라 다섯, 둘,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타국에 간 분이 돌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질입니다.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과 회계 결산을 보게 되시는데 제일 먼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신나게 달려와서는 열 개를 예수님 앞에 내 놓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떠나실 때에 제게 다섯 개를 맡기셨는데 떠나신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려서 열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정말 감동적으로 "참으로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서 크게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섯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고 또 네 주인, 예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라"는 엄청난 칭찬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하고 떳떳해서 네 개를 예수님 앞에 펼쳐 드리고 "여기 받으소서. 제게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를 더 늘려서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수고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다섯 개를 열 개 만들었거나 둘로 네 개로 만들었거나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돈 주인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파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성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대가로 허락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은 한 달란트로 이미 받아졌는데 섬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안 받은 걸로 하고 땅속에 갔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위한 계획이 많고 욕심이 컸기 때문에 영적인 성과를 위한 일은 귀찮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고 자기 육신의 입장을 욕구대로 채워보겠다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영적인 일은 그냥 땅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한 달란트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가서 파내서 흙이 묻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신앙인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쥐어박아도 같이 맞서 싸우려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받은 은혜 손실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모략중상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망정 못들은 것으로 하고 항상 영적인 소망과 영광스러운 결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놓으시고 가장 애타게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령한 성과, 영적인 성과만을 위하여 그저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분골쇄신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무성의했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25절에 "...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십니다. 이 사람은 결코 게을리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기 욕심과 세상 조건을 위하여, 자기 입장과 명분,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땅 속에 파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사명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결국 불신자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예수님의 판단은 영적 성과를 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게 해 드리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 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밑천을 손해 보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본전 갔다 돌려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결산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손해를 끼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성령님의 재주와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을 거두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

열 달란트 만든 사람은 덤으로 한 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세상 분배의 이치는 본전은 본전대로 돌려주고 늘린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본전과 그가 애써 노력해서 늘린 이득까지 몽땅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곳은 흑암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신를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이를 악물고 벌어 자신의 몫이라고 챙겨놓은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주와 능력까지 주시면서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영적인 소망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달란트 결산의 교훈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적 성과를 위하여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자체가 기술과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30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리석은 종과 같이 어두운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맡기신 달란트로 늘린 성과뿐 아니라 본전까지 다 넘겨주시면서 또 게으른 자의 본전까지 빼앗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을 다하여 달란트 결산의 때에 흐뭇하도록 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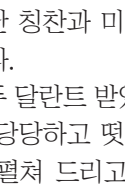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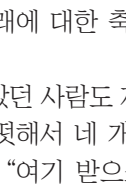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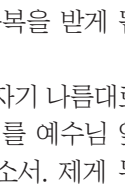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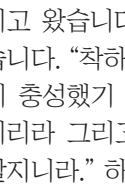
제40대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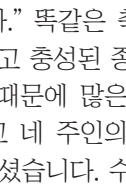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목사회 40대 이· 취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한해동안 수고하셨던 임원진들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돋움하는 신임임원진 들에게 오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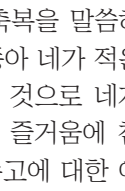

이사장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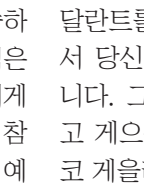

신임회장 (낫 말씀선교재단) 남상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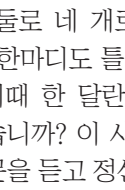

이임회장 (원흥프교회) 김익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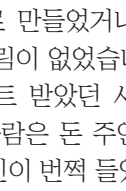

부회장 (One Hope Church) 박희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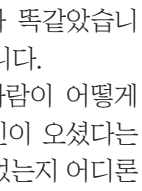

부회장 (청신교회) 김근수 목사


부회장 (밝은사랑선교재단대표) 김학청 목사


부회장 (이루리선교회대표) 이용훈 목사


부회장 (주님의마음교회) 윤건상 목사


부회장 (플러튼 영락교회) 유의상 목사


부회장 (은혜교회) 최정자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 40대 이·취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한해동안 수고하셨던 임원진들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돋움하는 신임임원진 들에게 오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8년 1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남가주가스펠교회 전화:T.(714)799-5673
  813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문의** : 박희성 목사 T.(626)522-8567

2018 OC 목사회 회장단 및 임원

- 회 장 : 남상국 목사
- 부회장 : 김근수, 김학청, 박희성, 이용훈, 윤건상, 유의상, 최정자 목사
- 부총무 : 최 다니엘 목사
- 회 계 : 에스더 윤 목사
- 서 기 : 김란이 목사
- 감 사 : 남승우, 김광선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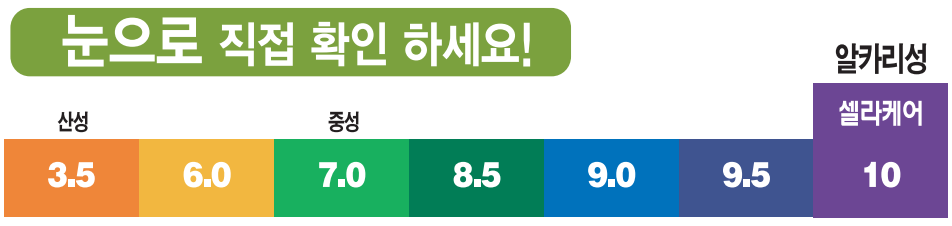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전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12월 31일 첫 예배를 드리고 필그림선교교회로의 새출발을 알렸다.

교단 탈퇴 관련 재산권 소송 모두 중단

양춘길 목사와 성도들 필그림선교교회로 새출발

뉴저지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가 지난 24일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PCUSA 교단 탈퇴와 관련한 재산권 보호 소송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필그림교회가 파라무스 지역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교회가 PCUSA 교단 탈퇴 과정에서 예배당을 포기한 사례는 지난 2015년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서 700만 달러 가치의 예배당을 그냥 두고 나왔던 LA 지역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가 있다.

필그림교회는 24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귀하는 교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중단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결과 찬성 630표(94.17%), 반대 37표(5.53%), 무효 2표로 교회 재산과 관련 소송을 일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필그림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버겐카운티 법원이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현재의 필그림교회의 리더들은 3일 내로 모든 부동산 서류, 은행 구좌 및 교회의 모든 재산을 동부한미노회로 넘기라는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뤄졌다.

필그림교회에 따르면, 교회의 건물과 자산은 28일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필그림교회 당회는 22일 임시당회를 긴급히 소집해 항소 등의 더 이상 교회 재산과 관련한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방향을 정하고 24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필그림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면서 "(동성애 관련) 진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필그림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항하여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목회실 당회및 교구장회의를 통해서도 한 뜻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춘길 목사가 이끄는 ECO 필그림교회는 교회건물을 포기하고 PCUSA 교단에서 나온 이후 교회명을 '필그림선교교회'로 정하고 2017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장소는 윅오프(Wyckoff) 지역의 페이스커뮤니티교회(Faith Community Church)와 이스턴기독교중학교(Eastern Christian Middle School)로 기존 필그림교회 예배당에서 차량으로 15분 가량 떨어져 있다. 교회와 학교 두 건물이 같은 부지에 붙어 있어 어른 예배는 교회에서, 유스그룹 예배는 학교에서 드려졌다.

양춘길 목사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춘길 목사는 "필그림선교교회로 역사의 첫 발걸음을 이제 시작한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배장소인 페이스커뮤니티교회는 지난 24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필그림교회 성전을 비롯한 교회재산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결정된 곳이다. 과거 이 곳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의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어 페이스커뮤니티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줬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 이번 필그림선교교회의 예배장소 제공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과 관련해 양춘길 목사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아야 했는데, 우리와 같은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연결이 됐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고 계심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8 워싱턴주 선교단체 협의회 정기총회

워싱턴주 선교단체 협의회 총회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 선교행사 기획과 안건에 관한 정기총회가 지난달 28일 리빙투게더 미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워싱턴주의 각 선교단체(GSM 황선규 대표, 시애틀 복음방송 이상진 장로, 위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이병일 목사와 임원, 기드온 동족선교 대표 박상원 목사, 세계창조 선교회 대표 박창성 목사, 샤론선교센터 대표 김명부 목사, 한사랑선교회 대표 한길수 선교사, 퍼시픽 대학 학장 정재현 교수, 북한고아 및 장애인 선교대표 권오덕 선교사 등) 선교단체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해 2018년도 행사 기획과 미래 선교 안건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황선규 목사는 "풍성케 하는 향기로운 제물(빌립보서 4:17-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교의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시는 2018년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모든 지난 일들은 즉 과거는 과거에 묻고 새해는 새해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듯이,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날에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강,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 ~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되어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Fax.310)787-7786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한국 사랑의교회 아프리카에 성경 약 1만권 기증

"성경을 보내는 것은 생명을 보내는 것"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해 봄 에티오피아에 이어 최근 아프리카에 성경을 추가로 기증했다.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에 전달된 후원금은 5천만원, 성경 1만권 분량으로 콘테이너박스 1대 분량에 해당한다. 대한성서공회는 아프리카 현지상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성서공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교회를 대표해 최오규, 오일환, 임원빈, 김원구 장로가 참석했으며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이 이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최오규 총무장로는 "성경을 전하는 것은 곧 생명을 전하는 것과 같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사역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봄에 이어 추가로 아프리카에 성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일환 서기장로는 "지난해 봄 에티오피아 제자훈련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젊은이들이 성경 1권을 가지고 수십 명이 함께 돌려가며 읽는 현실을 목도했다. 아직 세계 곳곳에는 성경이 필요한 곳이 많다. 이 일에 지속적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지난해 봄에 이어 다시 한번 성경 보급을 위해 후원해 준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사랑의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전 세계에는 6천8백여 개의 언어와 이를 쓰는 민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신구약성경을 자기 언어로 가진 민족은 6백개, 쪽복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민족은 2천여 개에 불과하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렇듯 성경을 갖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해 2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Disciple Making Leader's Summit 2017(제자훈련목회자세미나)'에서 에티오피아 개신교단으로서는 최대규모의 교단인 EKHC(The Ethiopian Kale Heywet Church) 측에 미화 4만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성경을 1차 지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 대학부도 '부활절 생명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며 아낀 헌금 1,522만 원을 대한성서공회 측에 전달해 태국을 거쳐 미얀마에 성경을 보낸 바 있다.

김진영 기자

한기원 신임 대표회장 조석규 목사

기독교원로목사회 조석규 목사 신임 대표회장 선출

제19차 총회 열고 각종 안건 처리

조석규 목사(남광교회 원로)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기원은 지난 12월 22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9차 총회를 열고, 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조 신임 대표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한기원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무엇보다 한기원이 교파를 초월해 모든 회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즘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 원로목회자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총회에선 지난 회기 감사 및 회계보고를 받고,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회에 앞서서는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다. 직전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가 인도한 예배는 강만원 목사(증경회장)의 기도, 최복규 목사(증경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한은수 목사(원로목자교회 담임)의 축사, 이상모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문세광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천하고 부족한 제가 한기원 대표회장으로 존경하는 원로목사님들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원로목사님들의 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축사한 한은수 목사는 "하나님은 죽의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원로목회자님들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꼭 산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한기원은 이날 후원이사장인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협의회 대표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주태 장로는 "원로목회자님들을 더 잘 섬기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한기원이 원로목회자님들이 제2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장시성 빈곤 기독교인들 구제 빌미로 배교 강요 받아

기독교 벽보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

중국 동남부 지역 장시성의 빈곤층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면 구제 혜택을 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공식 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의 보고를 통해 장시성 정부 관리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빈곤 해결을 약속하는 대신 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며, 기독교 벽보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최근 밝혔다.

장시성 상라오의 황진부 마을의 정부 관계자들은 연간 평균 소득이 5천 위안(미화 753.94달러) 이하의 인민을 지원하는 구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위의 조건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624개의 기독교 자료가 제거되고 453개가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됐다.

한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진해서 종교적인 그림, 사진을 없앴는데 이 실천이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산당 관리들이 집에까지 직접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는 어떠한 정부 기관도 신앙을 근거로 인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중국 헌법 제3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규정은 정부에 대한 충성으로 마오쩌둥 사진을 집에 걸던 오래전 중국의 실천을 떠오르게 한다"며 "시진핑이 전(前) 주석인 후진타오에게서 중국 통치권을 인계받은 이래 중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시진핑의 통치를 마오쩌둥의 문화 혁명 이후 가장 퇴보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핵심 지도자들이 시진핑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시점으로서는 시진핑의 통치가 무기한 지속되리라는 의미"라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차이나에이드는 황진부 마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학대를 밝히면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 및 관련 법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란 뜻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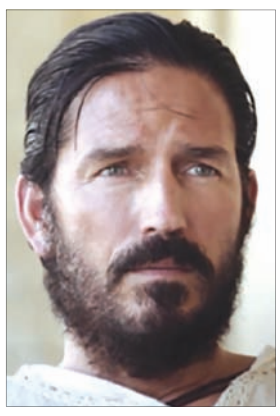
카비젤, 사도 바울 관련 영화에 누가로 출연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에서 누가로 열연한 짐 카비젤이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명으로 변화된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해진다는 의미'를 전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아주 작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영화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된다.

'왕좌의 게임', '다운튼 애비'에 출연한 제임스 폴크너가 사도 바울 역할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로 출연했던 짐 카비젤이 누가 역할을 각각 맡았다. 또 'A.D. 더 바이블 컨티뉴'의 조안 왈리, '더 시크릿 가든'의 존 린치 등이 출연한다.



짐 카비젤. ⓒ페이스북

앤드류 하야트 감독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티저의 첫인상은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의 극적인 마음과 성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에 기초하여 바울 사도의 삶의 면면을 그렸다. 또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진실된 이야기를 다뤘다. 이는 성경에 생명을 불어넣은,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영화는 오는 2018년 3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인도 캐롤 가수 6명 힌두인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체포

인도에서 6명의 캐롤 가수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붙잡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오픈도어즈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반개종법이 가장 엄격한 지역인 마드햐 프라데시주에서 발생했다.

가톨릭신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캐롤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힌두교인 남성은 "이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말했고, 기독교로 개종하자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인도가톨릭교회 대변인에 따르면, 캐롤 가수들과 2명의 사제들이 경찰에 의해 억류됐으며 이들을 도우러 온 8명의 사제들도 함께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2시경 이들 기독교인들을 석방했으나 같은 날 오전 7시에 10명의 사제들과 3명의 신학자들에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인두 극단주의 단체인 바즈랑달 회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캐롤 가수들의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인도를 이끌어 왔으며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고 있다. 또 소고기의 판매·소비금지 등 차별적인 법들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인도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EM CHURCH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주일오전 1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공동예배 11:30 AM
찬양예배 7:00 PM (수)
중보기도회 3:00 PM (목)
제자성서아카데미 9:30 AM (금)
새벽기도 6:00 AM (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할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님(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 서류 마감 : 2017년 11월 30일(목) 까지
2.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Email : lalkcyoon@gmail.com
lkc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식

겨울나무에게 배우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듯, 우리는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눅 5:39). 그래도 떠나보내야 할 과거라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벌거벗은 겨울나무를 생각하곤 합니다. 겨울나무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것들을 모두 떠나보낼 줄 압니다. 봄에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과 가을에 풍성했던 열매들과 아름다웠던 단풍들을 떠나보낼 줄 압니다. 우리는 겨울나무로부터 과거를 떠나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겨울나무가 지내온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속적인 떠나보냄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봄에 화려했던 꽃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진 그 자리에 열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내려놓음은 나눔입니다. 멋있고 맛있게 무르익은 열매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동물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열매를 나눔으로, 그 열매 속에 담긴 씨앗들이 재생산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드러낼 수 없기에 그것을 나눔을 통해 씨앗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단풍까지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는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답게 자신을 물들인 단풍을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풍도 내려놓아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풍이 낙엽이 되어 땅으로 떨어질 때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몸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울나무의 지혜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뿌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나무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뿌리가 든든하고 뿌리가 건강할 때 나무는 건강합니다.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길이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뿌리와 같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겨울나무가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겨울 동안에 오직 뿌리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뿌리는 모든 물과 영양분을 모든 가지에 공급해 줌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나무는 지친 뿌리를 쉬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들처럼 겨울나무는 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겨울나무의 내려놓음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희망찬 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싹과 새로운 꽃과 새로운 열매와의 만남을 위해 그리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떠남입니다. 떠남이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십시오.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과거라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제 과감히 떠나보내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좀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새해, 새로운 만남,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과거를 떠나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떠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마태가 본 왕의 족보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마태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4복음서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는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묘사된 왕의 족보에 당치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자의 이름과 그것에 한 사람을 더하여 5명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입니다. 왕가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속한 왕가의 족보는 지울 수 없는 허물과 흠으로 얼룩진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법적인 족보를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낳은 며느리, 민족 배신자가 된 화류계 여성, 노인과 결혼한 젊은 이방인 과부,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시집가 버린 지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장군부인,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소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족보에 대한 마태의 터치를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말끔하게 거룩한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혈주의"(pure-bloodism)에 해당하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완벽한 고상함과는 너무도 먼 여인들로부터 유래된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시에 쉽게 죄의 통용문으로 여겨졌던 연약한 이브의 후예, 여성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은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쇠사슬에 묶여있던 한 민족이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룹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 "여인의 후손"(창 3:15)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사 7:14)으로 예언을 이루시며 오셔서 구원을 성취합니다. 마태는 구원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버림당한 죄인으로 취급되던 세리인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임곤 목사 칼럼] 성공의 길

저는 2011년 12월 31일부로 팜스프링스한인교회에서 은퇴한 이임곤 목사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각자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재능에 맞는 일이면 기쁨으로 하기에 지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이 뒤따릅니다.

저에게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제는 40대로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직업을 가졌고 상당한 물질의 부유함도 이루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만 일을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교회당 건축 문제, 선교비 등이 염려되겠습니까?

저는 1984년 12월 16일 주일 성찬식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이튿날 월요일 직장에서 성경을 폈더니 이때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이 100% 믿어지며 찬송가의 테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의 구구절절이 귀에 꽂히며 성령의 불세례가 주일보다 더 강하게 임하였는데, 그때 "네 자녀들은 내가 준 재능대로 일을 시켜라"는 계시가 뇌리에 찍혔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기다렸고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의 실수도 인정해 주면서 즐겁게 자라도록 격려해 주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제는 칭찬임을 확신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제일 흔한 실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의 재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어 이성을 만나면 가만히 그냥 두세요. 사춘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단지 남자나 여자나 잠은 반드시 집에서 자야 한다고 했고 대학은 집에서 다녀야 하며 기숙사 생활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 모두 대학을 선택할 때 "네가 좋아하는 대학과 전공과목을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업만은 부모 형제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권하지 마시고,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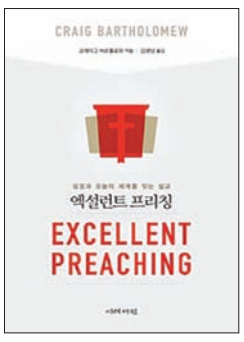
저의 네 자녀는 전공(직업)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가졌는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친절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재능이기에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의 모양새도 각기 다르고 재능도 각기 다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필요하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진실로 참된 성공입니다.

비행기가 목적지 향해 가듯 설교의 목적지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엑설런트 프리칭
크레이크 바르톨로뮤
김광남 역
이레서원 | 136쪽

이 책을 감히 설교에 답을 주는 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책임에는 분명하다. 이 책은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전 여정을 설교로 비유한다. 목차를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여행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든다. 목적, 비행기, 화물, 기장, 도착지에서 바라보는 광경, 공항, 비행기 착륙시키기, 그리고 결론까지. 불과 110쪽 분량의 적은 책이다. 그럼에도 설교가 가진 모든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서론에서 저자는 기독교의 한계를 '종교의 사유화'로 정의한다. 즉 개인의 신앙고백은 있으나, 공적 영역에서 복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종교가 사유화될 경우, 종교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허용되지만 주요한 공적 영역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17쪽)." 결국 이러한 종교의 사유화는 주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여길 뿐,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 '마약'과 같은 기독교로 전락시킨다. 반대로 자유주의적 설교는 공적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치환시켜 개인의 종말을 가져온다. 이러한 이분법적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설교관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강력한 설교는 '적용'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복음주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러나 착륙하지 않고 하늘을 계속 운항 중이다. 삶과 현장이라는 또 다른 공항, 즉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마치 기장처럼, 설교라는 비행기를 적용이라는 공항으로 이끈다.

2장에서는 비행기는 설교이며, 화물은 '하나님의 말씀(23쪽)'이다. 저자는 끊임없이 교인들의 '현장'을 세심히 살피라고 강조한다. 4장의 도착지에서 바라본 풍경과 5장의 '공항'은 실제로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피조세계'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4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한다. 그러니까 설교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인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현장이며, 성경으로 재해석되어야한다. 그 현실 속에서 '무한한 속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43쪽)'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설교다. 바른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현실에 의해 압도(42쪽)'되게 한다. 5장에서는 '회중 가운데 실제로 말씀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피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105쪽)'고 도전한다.

즉 비행기는 착륙되어야 한다. 착륙할 공항이 어떤 곳인지, 공항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교는 반드시 불시착하고 말 것이다. 결국 설교자는 '이중 듣기'를 해야 한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다른 하나는 현장이라는 콘텍스트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에 대해 가능한 한 깊은 인식을 갖는 것이다. 존 스토트는 설교자들에게 '이중 듣기(double listening)'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설교자는 한 귀로는 "성경의 말씀을, 다른 한 귀로는 우리의 문화가 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73쪽)."

현장이라는 세계는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의 현장은 성경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역사와 삶을 해석할 때 진짜의 삶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을 성경이란 '렌즈(66쪽)'로 보아야 한다. 성경 속에서 바라본 역사가 참이다. 존 칼빈의 말처럼 성경은 색안경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안경이다.

"한편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계시적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을 제공하며, 교회가 우리가 그 웅장한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들어맞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56쪽)."

분명 성경의 이야기는 현대와 다르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 역사를 아우르는 계시다.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이라는 참 이야기 속에 청중들의 현장이 존재한다. 설교자는 성경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된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이라는 현장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일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서론에서 자유주의적 설교와 복음주의적 설교가 갖는 이분법적 설교 형태를 벗어나 성경적인 바른 설교로 인도한다. 그렇다면 바른 설교는 '성경 해석', '현장 해석', 그리고 '성경적으로 현장을 재해석하기'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6장에서 설교의 예를 제시하면서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3장은 의미심장하다. 설교다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설교라는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은 설교자이다. 그러나 저자는 기장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34쪽)'이라 답한다. 왜 성령일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를 필요(35쪽)'가 있고,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즉 설교자가 먼저 성령이 자신을 인도하는 기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경건 생활이 없는 설교자는 스스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사람이다. 바쁨을 자랑하는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이다. 그는 성도를 위하여 바쁘지 말아야 하며, 보이는 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충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은 숨겨져 있기 때문'(39쪽)이다.

난 그렇게 믿는다. 바른 설교자라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삶에 뿌리내리기 전에, 삶을 해석하는 성경에 먼저 뿌리내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 존 스토트의 주장처럼 '이중 듣기'는 불가피한 것이다.

마지막 책을 덮으면서, 왜 이 책 제목이 '엑설런트 프리칭'인지 생각했다. 수사학적 기교나 청중을 휘어잡는 기법 등이 없는데 말이다. 필자의 소견으론 '현장에 대한 집요한 강조'라고 믿는다. 저자는 성경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현장성을 중요시한다. 설교에 대한 불시착은 현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부제를 '성경과 오늘의 세계를 잇는 설교'라 붙인 이유가 그것이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같은 교회 출석해도... 남편과 아내가 믿는 게 다르다?

좌충우돌 강도헌의 책읽기

가족치료와 영성
프로마 워시
박태영, 박소영, 조성희 역
학지사 | 570쪽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상담 또한 경험으로 보건대 알면 알수록(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모두) 두렵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낀다. 더욱이 상담이라는 특징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입장이라, 같은 이슈라 할지라도 럭비공의 튕김 같이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담자의 말과 정서를 정확히 공감하고 관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또한 이상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을 공부했고, 또한 공부 중에 있다.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지와 심리검사 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검사 결과보다, 내담자 안에 있는 자의식의 레질리언스를 항상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분명 심리검사지가 신뢰도와 타당도에 근거해 말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참고 자료이다. 상담은 진행하면서 파악되고 정리되어 가는 것이다. 본서 또한 이러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부부와 가족관계에서 개종, 이교도 간의 결혼 등의 북아메리카에서 현재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념과 실천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전망을 보게 해 준다. 단적인 예로 예배 참석 그리고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감소하면서 영성(더 폭넓고 개인의 더 초월적인 가치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북아메리카 가족이 현재 직면한 상황을 그대로 느끼게 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개인, 부부, 가족이 자신의 영적 통로를 점차 만들어 내고 있고, 자신의 삶과 관계에 맞추기 위하여 신념 내에 있거나 신념 밖에 있는 요소들을 조합하고 있다.

즉 "개인적 신념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더 초자연적인 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의식의 실행 안에서, 신념 공동체와 관련해서, 자연과 교류하면서, 음악과 창의적인 예술을 통하여, 그리고 타인과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와 사회 행동을 통한 방법이 포함되기도 한다(6쪽)."

'종교', '영성' 이런 단어들은 명확히 정의하기가 매우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신론적 혹은 불가지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종교관을 바탕으로 하여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영성은 삶의 다양한 영역과 선택의 환경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서는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믿고 (이해하고, 소속되고, 추구하는) 있는 기독교는 다르다.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깨닫는 바와 적용점이 다르다. 즉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점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 책은 총 20개의 논문들로 편집돼 있는데, 근본 심리 이론적 내용을 다루는 논문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적 관점의 사례에 근거한 논문들로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가들에게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논문의 각 순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배치돼 있어, 쭉 읽어가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상담상황에서 각 논문 주제별로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018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생 5기 모집

"건강한 선교를 위해 훈련과 정식 파송은 필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눅4:43~44)

한국 최대 선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미주해외선교사훈련원(OMTC)에서 2018년 장기 선교사 훈련 정규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GMS 선교사 파송 자격을 부여받고 장기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실버 선교사로의 꿈을 가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GMS 미주 OMTC선교사 5기 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1. **일정** : 2018년 1월 22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2. **장소** : 에너하임 GP선교센터(10582 Katella Ave. Anaheim, CA92804)
3. **훈련대상** : 목사, 평신도, 선교사
4. **훈련비** : 1,400불
5. **강사** : GMS 미주 OMTC 이사, 선교 전문가, 현지 선교사, 선교학자, 김찬곤 GMS 이사장, 박무용 미주 OMTC 이사장, 조기산 GMS 본부총무, 이병구 미주 OMTC 훈련원장, 박기호 교수 외 20명
6. **강의과목** : Kairos 선교 훈련 프로그램, 선교 전략, 선교 문화 인류학, 선교와 인문학, 선교 정책, 선교사의 삶, 건강한 선교, 선교 역사, 리더십, 영성 관리 등
7. **GMS 선교사 임명 및 파송식** : 2월 8일(목) 오후 5시
8. **등록 마감** : 1월 15일(월)

* 장기 선교사는 3주간, 단기 선교사는 2주간 훈련,
2018년 훈련을 한 주간 받고 2019년에 두 주간을 받아도 됨
본 과정은 GMS 정식 선교사 허입을 위한 훈련임.

(문의) Tel : 714-614-3666 E-mail : igmc21@gmail.com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

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손만두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팥찐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WORD 말씀카드
전면디자인 5가지와 한영으로 된 성구 350구절의 예쁜 말씀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F형
EVENT
20% OFF
12월 6일 까지 주문고객 !!
150개 ~~$150~~ $120
300개 ~~$250~~ $200
500개 ~~$350~~ $280
A형 B형 C형 D형 E형
A~F 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뒷면에 한영성경구절 앞면에 교회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GOOD FRIENDS FOR CHURCH 주님미디어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 junimmedia@gmail.com

멀리서 본 대학의 모습

이 대학을 방문한 필자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6)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중심,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19세기에 그들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다. 1882년 Zvi Hermann Shapira에 의해 대학 설립 계획이 세워지고 1884년 시온 카토비츠 회의에서 처음 히브리 대학 설립이 구체화되었고, 1913년 11차 세계 시오니즘 대회에서 히브리 대학의 기초를 세웠고, 1925년 4월 1일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연결된 북쪽 산 능선에 히브리 대학 Mt. Scopus 캠퍼스가 오픈되었다. 대학이 문을 열 때는 영국의 위임통치시절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제임스 밸포어, 외교관 허버트 사무엘 등 영국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1949년 5월 의과대학을, 1949년 11월 법과 대학을, 1952년 농업 연구소를 설립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1948년) 중 아랍인들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히브리 대학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1948년에 아랍인들은 하다사 의학 연구소를 공격했고, Mt. Scopus 캠퍼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역과 완전 차단되었다. 1949년 요르단 정부가 휴전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인들이 Mt. Scopus 캠퍼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자 히브리 대학은 Givat Ram에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었다. Givat Ram 캠퍼스는 1953년 완공되었다. Givat Ram 캠퍼스가 완공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40개의 건물에 흩어져 수업을 들어야 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제3차 중동 전쟁인 6일 전쟁 후에 히브리 대학은 Mt. Scopus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81년 새로운 Mt. Scopus 캠퍼스가 완성되었고, Mt. Scopus 캠퍼스는 다시 히브리 대학의 중심이 되었다.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

히브리 대학은 6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동북쪽 일명 망원경 산이다.(히브리어로 하르 하쪼핌) 이 학교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 설립의 제창 위에 순수한 유대 민족 자본에 의해 1925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황량한 산 위에 몇 개의 건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구 시가나 서 예루살렘에서 조랑말을 타고 영국군의 호위를 받으며 대학에 다녔다. 1947년 유엔의 분리 독립안을 팔레스타인이 거부하고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만의 단독정부가 텔아비브에 선포되었다.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누이게 되었는데 히브리 대학은 동쪽 요르단 정부의 관할 하에 들어감으로써 대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어졌다. Mt. Scopus 캠퍼스로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유대국가 지역이었던 서 예루살렘 Givat Ram이라는 곳에 캠퍼스를 차리고 한동안 이곳이 주 캠퍼스가 되었다.

1967년 6일 전쟁에 의해 요르단 땅이었던 구 캠퍼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왔다. 이후 아메리카, 유럽의 유대인들이 거금을 희사하여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고 계속 발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황금사원이 내려다 보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연결된 Mt. Scopus 캠퍼스는 주로 인문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이공계와 예술계는 서쪽 Givat Ram The Edmond J. Safra 캠퍼스에 있다. 의대와 부속병원은 에인케렘(Ein Karem)에, 농과대학은 르호봇(Rehovot)이라는 도시로 흩어져 있다. 총 6개의 캠퍼스에 약 2만 3천 5백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14개 단과대학, 200개 학위 프로그램, 5,000개 코스 강좌가 있는 이스라엘 최대의 대학이 되었다. 중앙도서관의 도서 보유량과 교수들의 실력이 히브리 대학을 세계 10대 대학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대학 구내에 있는 유대교 회당은 옛날 성전이 있던 황금 돔을 바라보고 있다. 정한 시간에 옛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들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로 된, 메시야가 오면 앉으실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모습

히브리 대학에서 펼쳐진 복음의 꿈

이 대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이스라엘 총리 4명,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교내 도서관은 방대한 유대인 연구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탁월한 연구 성과로 대학 소유의 기술 이전 센터에 7,000개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특별히 아인슈타인이 히브리 대학 설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되어 있는 이 Mt. Scopus 캠퍼스에서 유대인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들의 구원을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매주 한차례 모여 빈 강의실을 찾아 나선다.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다. 완고한 히브리 대학에 기독 학생회가 있다.

히브리 대학이 있는 이 산은 구 예루살렘보다 약 80-100m 가량 높다. 해발850m 정도 된다. 따라서 구 예루살렘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Mt. Scopus 캠퍼스 동쪽에서 유대 광야와 여리고, 느보산(Nebo Mountain), 사해 등을 날씨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 옛 지명은 '놉'이라 불렀는데 사울 왕 때 다윗이 도망 중 이곳에서 제사장 후대를 받은 관계로 제사장 85인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곳이기도 하다.(삼상 21:1-9, 22:11-19)

필자는 1999년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으로 이 대학에 몸담아 그간 고고학, 구약 성경학, 역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음악과에서 합창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 대학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황금 돔을 생각하며 메시야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도한다.

〈계속〉

회당 입구에 있는 메시야의 자리

〈신년사〉 사우스베이목사회 안병권 회장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안병권 회장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독자들 위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비적인 해로 교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로이 다짐하고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신학적 개혁과 함께 세상에서의 등대 역할을 회복하는 역할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는 지난 해 연합기도회와 북한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가졌고, 지역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20여개 교회 찬양대와 찬양팀이 참가하였고 1000여 명의 교우들이 연합해 함께 찬양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연합 행사를 하면 그 행사 자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해 주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는 교회가 도시 중앙에 세워져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통로였음을 보여줍니다. 작금의 교회는 그 빛이 희미해 사상과 가치관을 제시해 주지 못하여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밟혀지고(비난) 있는 듯해 다시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혁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 정신은 계속 돼야 합니다. 그것은 개혁은 "사람의 일이 아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로지 교회의 왜곡된 교리와 실천을 극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의 멸망의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할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가집니다. 2018년 새해에는 교회와 성도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사랑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작은 물방울이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서로 힘을 합하고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 세상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샌퍼난도밸리한인교협 서오석 회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서오석 회장

할렐루야! 2018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가정과 직장생업, 자녀들에게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샘가의 무성한 가지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한 번도 가 보지 않는 2018년도 새해의 강을 건너려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조국을 잃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 아하와 강을 건너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길을 기도하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그들 여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스7: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스7: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스8: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새해에는 모든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 위에 한해 동안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8년 2월에는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6월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의 위협과 전쟁,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승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 더 에스라와 같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귀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는 에스라의 3가지 결단이 나옵니다.

(스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한 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신년사〉 미성대학교 류종길 총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이다

류종길 총장

2018년은 70% 이상의 국민들이 옳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편해도 표현으로라도 동의해 줄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가 아니면, 군중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나는 40여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나는 만년 여당이야!"라는 구호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정치 성향 때문에 성도들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끔 선거 시절이 오면, 작은 도시지만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는 항상 이기는 사람의 편입니다. 금번 선거에 이기고 오시면 내가 한 턱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진짜 당선된 후에 찾아와 "목사님의 말대로 이기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하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1212 사태로 집권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옥중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기도를 할 때도 그 지도자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생활(?)까지 크게 지장을 주어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강한 느낌으로 충격을 주셨습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 충격을 하나님의 충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충격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투표와는 상관없이 결과에 항상 순종하였고, 계속 "만년 여당(?)"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내가 투표한 지도자나, 내가 지지를 하지 않는 지도자나, 나와 성향이 같은 지도자나 나와 성향이 다른 지도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혹은 글로 표현할 기회가 오거나 국가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를 폄하하는 글이나 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연말 당회에서 2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한 나의 목회계획안이 부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앞으로 저와 같이 나의 의견이 다수결로 부결될 경우에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승복하고 순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한국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씨의 글,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글에서 망하고 있는 보수의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있다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은 8개월간 변함없이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만은 거꾸로 70% 이상이 거부(?) 하는 듯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70%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불신자들의 인식에 큰 오해를 주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강단에서 강렬하게 외치면 그 70%의 청중 속에 있는 분들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나의 정치의견은 투표소에서만 표현하고,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파하여 70%의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치지도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틀렸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까? 2018년에는 그런 겸손한 생각으로 나를 잘 통제하며 사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신년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이승준 목사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승준 목사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땀, 눈물, 기도, 정성,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날들의 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 날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시 90:12).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 2절에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주한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인생에도 끝이 있고 떠날 날이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잘 선택하면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잘못 선택하면 실패와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소유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목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2017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2018년도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2018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 주신 2018년에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도마뱀의 사랑 이야기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1964년에 개최되었던 동경 올림픽을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될 때였습니다. 올림픽 준비 위원회는 기존 경기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기장 주변의 집들을 구입하고 그 집들을 헐고 큰 주 경기장 공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건축한지 3년 된 집을 허는 작업을 하는 도중 그 집의 지붕에서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은 그냥 단순한 도마뱀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뱀은 꼬리에 못이 박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박힌 못인가 생각하고 집주인을 불러 확인해 보니 3년 동안은 집에 어떠한 수리나 공사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도마뱀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일손을 멈추고 그 도마뱀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도마뱀 입에는 먹이가 물려 있었고 그 먹이를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전달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사 관계자들은 그 지나간 3년 동안 도마뱀들이 주고받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부인지 혹은 친구인지, 혹은 모녀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못에 박힌 동료 도마뱀을 위해 3년 동안 먹이를 날라다 준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망치소리 요란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지만 여전히 먹이를 갖다 주다가 사람들의 눈에 띈 것입니다. 비록 도마뱀의 이야기이지만 3년 동안이나 먹이를 물어다 준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쉽게 배신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보다 더 멋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약하고 아픈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은혜로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공연됐다.

은혜로교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개최해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22일 오후 은혜로교회 본당에서 열린 칸타타에서는 어린이 연합 중창단을 비롯해 교회 연합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하나임 찬양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칸타타는 오석준 장로의 환영 인사 및 기도 후에 오프닝 메들리로 시작돼 〈평화의 약속〉, 〈마니피캇/마리아의 찬가〉, 〈구유 메들리〉,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 세 사람〉, 〈캐럴 메들리〉 순으로 진행되며 남성과 여성의 해설자가 성탄 스토리를 전개했다.

이번 칸타타는 소프라노와 다양한 합창 공연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김경환 담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중앙장로교회 송구영신예배

얼바인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이기업)는 지난 39년 동안 미국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예배 장소를 이전해야 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빌리지 않고 구입하게 인도하셨다.

39년 동안 미국 교회를 빌려 사용하면서 한국 음식을 못 먹었던 성도들은 이번 송구영신예배에서는 마음껏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누렸다.

박희민 목사 APU에서 명예인문학 박사 학위 받아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에서 명예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6일(토) 열린 가을학기 학위 수여식에서 존 월레스 총장은 박희민 목사에게 이 학위를 수여했다. 학교 측은 박희민 목사가 미주 교계와 한인 사회, 인종 화합 등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이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희민 목사는 에티오피아 선교사 출신으로 미주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나성영락교회로 청빙받아 16년간 목회했다. 장신대, 프린스톤신학교, 토론토 녹스신학교 등에서 공부했으며 한흑기독교연맹 공동회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미주 대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미주장신대 학장 등을 지내면서 교계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교회의 급속한 부흥의 빛과 그림자, 축적의 시간의 상실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입법화의 쓰나미 앞에
유럽교회처럼 쇠퇴하고 사멸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효하였던
소강석목사가 성대 수술 후의 침묵 속에서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예지력과 날선 위기의식으로 써 내려간
미래 한국교회의 서바이벌을 위한 축적의 전략서!
2018년 목회를
미래교회 서바이벌로 시작하라!
미래교회 서바이벌
소강석 지음
272면 / 12,000원
새롭게 하소서
소강석 지음
여기, 뼈가 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설하며
새로워지기 위해 절규하는 한 사내가 있다.
눈물범벅된 얼굴로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며 써 내려간
다윗의 처절한 참회의 서사시!
296면 / 13,000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항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